



♡ 유임정 10기 - 합.격.수.기. ♡

수강생명	○○인 수강생		수강방식	인강
응시지역	전북		병행 여부	학부 병행
공부경력	초수		등수	전북 2등
점수	1차	교육과정:63      논술:19	2차	97.73 (면접/실연 각각 1.XX씩 깎였는데 정확한 점수를 잊었어요..)

<좌우명>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0. 시작하는 말

안녕하세요! 저는 평가원 지역에 차석으로 합격하게 된 초수생입니다! 임용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땐 알고 있는 정보도 하나도 없었고, N수생들이 무작정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믿고, 하루 하루에 충실하다 보니 결국은 최종합격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박수민 선생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며, 끝내 합격창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제 합격 수기가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1~10월 시기별 공부 계획 및 방법 (유임정 강의 활용 방법)

1~2월 <이론반 시기>

고시문 & 안전	<p><b>고시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 공부 때문에 어느 정도 고시문이 외워진 상태였어요. 학부 땐 유튜브에 있는 고시문 암기송을 활용해 외웠답니다! 통학할 때, 씻을 때 등등 틈틈이 계속해서 노래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금방 외울 수 있었어요.</li> <li>- 박쌤 강의는 1월 5일에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월 1일부터 4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시문을 다 외우는 걸로 목표를 삼고, 대강 외워진 상태였던 고시문을 똑바로 다쳤어요. 손으로 써보고 노래를 부르며 외우고, 타이핑 테스트로 암기를 확인했어요.</li> <li>- 모두 외운 후에는 매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고시문 타이핑 테스트를 보고 시작했어요. 타이핑 테스트 중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항목을 손으로 여러 번 써보며 외웠어요.</li> </ul>
----------	---

**7대 안전 & 아복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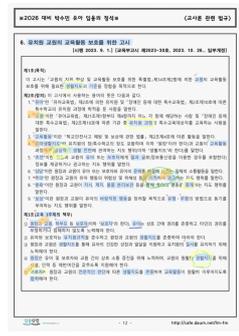
- 고시문을 확실히 외운 후엔 7대 안전과 아복법 시행령도 외웠습니다. 이 둘도 유튜브에 있는 노래를 활용해서 외웠어요. 고시문과 안전처럼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하는 것들은 노래로 머리에 확실히 박아버리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 이 둘도 고시문과 마찬가지로 매일 타이핑 테스트를 보았고, 틀린 부분은 손으로 써가며 외웠어요.

**해이실**

- 매일 쪽수를 정해두고 해이실 원문을 조금씩 읽었어요.
- 1회독을 돌린 후에는 [해설서 : 목차 정리 후 목차 백지t], [이해, 실행 : 박쌤 백지t 활용]을 병행했어요.
- 박쌤 해이실 강의를 들은 후에는 요약자료에 강의 내용과 중요 부분 등을 함께 정리해 단권화했어요.

**법**

- 이 시기엔 박쌤이 주신 법이 몇 개 없어서, 1주일에 3번 정도로 넉넉하게 법을 봤어요. 쪽수를 정해두고 조금씩 외웠습니다.
- 법 자료 pdf를 아이패드에서 받은 후, 빈칸을 뚫어가며 공부했어요. 법도 토씨 하나 틀리면 안 되기에, 틀릴 때마다 체크 해놓으면서 여러 번 보고 원문 그대로 암기하고자 노력했어요.



[법 pdf]

일	월	화	수	목	금
해당 주차 강의 수강			해당 주차 전체 복습	해당 주차 기출 + 전 주차 복습	전 주차 복습

- 모든 강의 수강 시 [강의 수강 → 복습 → 요약 자료 정리 → 목차 수첩 → 암기 → 백지t] 루틴을 돌리며 공부했습니다. 전 하루에 강의를 2개 정도씩 나누어 들었어요.

① 강의 수강

- 형광펜 : 강의에서 언급하신 것 / 볼펜 : 중요한 설명 / 샤프 : 예시, 자잘한 설명
- 강의를 들을 땐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설명해 주시는 모든 내용을 바로 소화시키려고 노력했어요.

② 복습

- 교재에 메모해두었던 것을 바탕으로 다시 교재를 꼼꼼하게 정독했어요.

③ 요약 자료 정리

- 요약 자료를 인쇄할 때 양면이 아닌 단면으로 인쇄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추가해 갈 수 있도록 했어요.
- 중요한 텍스트에 형광펜을 긋고, 요약 자료에 없는 내용과 암기법, 예시 등은 따로 추가 해가며 단권화 자료를 만들어갔습니다.

④ 목차 수첩

- 수첩에 인출을 위한 목차 목록을 만들었어요. 저만의 주제를 잡고, 인출할 개수를 적어 이후 백지t에 계속해서 활용했습니다.

<b>개론</b>	<p>⑤ 암기 &amp; 백지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차 노트까지 모두 정리한 후엔, 정리했던 자료들을 보며 암기를 시작했어요. 전 손으로 글씨를 써가며 암기를 하는 타입이어서, 외워질 때까지 그냥 백지에 계속 써가며 암기했습니다.</li> <li>- 모두 암기를 한 후에는 목차노트만 펼쳐놓고 백지에 외운 내용을 샤프로 써 내려갔어요. 다 쓴 후엔 요약자료 및 기본서와 비교해가며 틀린 내용과 부족한 내용을 빨간 볼펜으로 수정해가며 채점했습니다. 이후엔 틀렸던 내용, 부족했던 내용을 다시 써가며 외우고, 틀렸던 부분만 또 백지t를 진행했습니다.</li> </ul> <p>⑥ 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쌤이 주차별로 주시는 기출을 풀고, 스스로 어느 정도 오답을 복습한 후 해설 강의를 들었어요.</li> <li>- 기출에 나온 낯선 표현이나 내용들은 요약자료에 추가해서 적었습니다.</li> <li>- 기출에 나온 개념을 요약 자료에 표시했어요. 원형 견출지 위에 해당 개념이 나온 기출의 연도를 적어 붙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부할 때 개념의 경중을 따져가며 공부했어요.</li> </ul>
<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 평균 공부 시간 : 7~8시간</li> <li>-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오프를 가졌어요. 하루를 통째로 쉬는 건 마음이 불안해서 오전에 최소 2시간은 공부 시간을 채운 후,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며 쉬었어요.</li> <li>- 초반에는 강의 수강 전 교재를 읽으며 예습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시간만 오래 걸리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후엔 생략했어요. 대신 강의를 듣기 전 교재의 큰 목차만 보며, 강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정도만 잡고 들어갔습니다.</li> <li>- 이 시기에 꼭 해이실을 정독하고 자신만의 해이실 요약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드려요. 후반기로 갈수록 원문을 보고 있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더라고요. 이때 해이실을 꼼꼼하게 봐놓고, 3월부터는 요약자료를 회독하세요!</li> <li>- 제 공부에서 가장 메인이 되었던 공부는 바로 요약 자료 정리라고 생각해요! 전 상반기부터 박쌤이 주신 요약 자료에 내용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추가해가며 저만의 단권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서는 양이 너무 많고, 머릿속에 구조화해서 넣기도 한계가 있어요. 체계가 잡힌 자신만의 요약 및 단권화 자료를 이 시기부터 꾸준히 만들어 가는 걸 추천드려요.</li> </ul>

**3~4월 <이론반 시기>**

<b>고시문 &amp; 안전</b>	- 고시문, 7대 안전, 아복법 타이핑t를 번갈아가며 매일 실시했어요.
<b>해이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에 한 개씩 이해, 실행 자료에 있는 놀이 사례들을 분석했어요. (관련 누리과정 요소, 이론 찾기)</li> <li>- 틈날 때마다 해설서 목차, 이해&amp;실행 백지t 실시했어요.</li> </ul>
<b>법</b>	- 학교 수업 쉬는 시간에 잠깐씩만 봤어요. 따로 시간을 쏟진 않았습니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 평균 공부 시간 : 학교O - 3~4시간 / 학교X - 9시간</li> <li>- 개강+과제+각론+논술이 한 번에 들어와서 정말 바쁜 시기였어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실수가 없겠더라고요. 3월부터 오프를 없앴고, 학교 수업을 듣는 게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공부했어요.</li> </ul>
---	---

### 5월 <이론반 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한 달 동안 교생 실습을 병행했어요. 실습하는 동안 절대 강의를 밀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길 다짐했었는데, 정작 실습을 시작하니까 정말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매일 실습이 끝난 후엔 일지 작성과 수정에 수업 준비까지 하니 시간도 체력도 남아나질 않았어요.</li> <li>- 그렇다고 아예 공부를 놓고 있는 건 불안해서 틈틈이 공부를 했어요. 고시문과 안전 타이핑 테스트, 해이실 요약노트 정독을 시간 날 때마다 진행했어요. 수업 준비가 일찍 끝난 날이나 주말에 시간이 남을 때는 각론 강의를 조금씩 들었습니다.</li> </ul>
---	--

### 6월 <이론반 시기>

고시문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문, 7대 안전, 아복법 타이핑을 번갈아가며 매일 실시했어요.</li> <li>- 분량을 나누어 매일 조금씩 응급처치 부분을 정독했어요.</li> </ul>
해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아있는 이해, 실행의 사례를 마저 읽었어요.</li> </ul>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량을 정해두고 매일 조금씩 정독했어요.</li> </ul>
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술 실전반 강의를 들었어요. 공부 방법은 논술 기초반 때와 같습니다.</li> </ul>
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론 강의를 따라잡기 전까진 아예 펼치지 않았어요.</li> <li>- 밀린 각론 강의를 모두 따라잡으니 문풀 시작 전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고, 이 시기에 한 과목씩 복습과 백지t를 실시하며 복습을 한 바퀴 돌렸습니다.</li> </ul>
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에 강의 3개 정도씩을 들으며 진도를 따라잡았어요. 공부법은 1~4월 때와 같습니다. 주차별로 따라잡을 때마다 복습 및 백지t와 확인 문제 풀이도 잊지 않고 해주며 꾸준히 누적 복습 해갔어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 평균 공부 시간 : 9시간</li> <li>- 실습이 끝나고 공부 패턴을 되찾고, 밀린 강의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니 정말 막막했어요. 이전까지 공부해왔던 것들도 다 까먹은 것만 같아서 계속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한 번 시원하게 울고 ㅎㅎ.. 얼른 정신 차리고 속도 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li> <li>- 전 6월 한 달 동안 강의 진도를 모두 따라잡았어요. 만약 여러분도 실습 때문에 강의를 밀렸다면 복습보단 우선 밀린 강의를 쳐내세요. 이전 내용 복습은 문풀 시기에 병행해도 정말 충분합니다. 고시문과 안전, 해이실, 법도 이 시기엔 조금 소홀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li> </ul>

7~8월 <영역별 문제풀이반>

<p><b>고시문 &amp; 안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문, 7대 안전, 아복법 타이핑t를 번갈아가며 매일 실시했어요.</li> <li>- 분량을 나누어 매일 조금씩 응급처치 부분을 정독했어요.</li> </ul>																																												
<p><b>해이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틈날 때마다 해설서 목차, 이해&amp;실행 백지t 실시했어요.</li> </ul>																																												
<p><b>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중에 파는 법 관련 문제집을 매일 일부분씩 풀었어요. 여러 번 풀기 위해 문제집이 아닌 백지에 문제를 풀었고, 틀린 문제만 볼펜으로 문제집에 표시해두었어요. 틀린 부분은 법pdf에도 표시했습니다.</li> <li>- 문제집을 풀며 새롭게 접한 법이나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 캡처한 후, 저의 법pdf파일에 추가했어요. 문제집에서 뚫어둔 새로운 빈칸도 제 pdf파일에 추가해갔습니다.</li> <li>- 문제집을 한 번 모두 푼 후에는 매일 두 데이 씩 풀며 다시 한번 돌렸어요.</li> </ul>																																												
<p><b>*</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 평균 공부 시간 : 10시간</li> <li>- 문풀을 시작하며 헛갈리는 개념들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전 이 시기에 박쌤 카페에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질문 3개씩은 꾸준히 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질문하며 꼭 짚고 넘어가길 바라요!</li> </ul>																																												
<p><b>논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술은 한 문제도 풀지 않았어요. 대신 2~3일마다 논술 기초반과 실전반에서 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복습했어요. 해당 문제와 제가 작성했었던 답안을 보며 답안 작성 시 놓쳤던 부분, 유념해야 하는 부분 등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li> <li>- 자주 하는 실수를 깨달았고, 추후 논술 작성 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li> </ul> <div data-bbox="1149 1120 1348 144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논술 작성 주의사항</b></p> <p>논술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논술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논술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논술을 작성할 때는 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후, 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논술을 작성할 때는 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후, 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p> <p>[논술 작성 시 주의사항 일부]</p> </div>																																												
<p><b>개론 &amp; 각론</b></p>	<table border="1" data-bbox="295 1467 1412 1579"> <tr> <td></td> <td>7월 1주</td> <td>7월 2주</td> <td>7월 3주</td> <td>7월 4주</td> <td>7월 5주</td> <td>8월 1주</td> <td>8월 2주</td> <td>8월 3주</td> <td>8월 4주</td> </tr> <tr> <td>시험영역</td> <td>성+발</td> <td>사+놀</td> <td>교+부</td> <td>신</td> <td>의</td> <td>사</td> <td>예</td> <td>자</td> <td>운</td> </tr> <tr> <td>추가영역</td> <td>신</td> <td>의</td> <td>사</td> <td>예</td> <td>자</td> <td>운</td> <td>성+발</td> <td>사+놀</td> <td>교+부</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295 1590 1412 1668"> <tr> <td>월</td> <td>화</td> <td>수</td> <td>목</td> <td>금</td> <td>토</td> <td>일</td> </tr> <tr> <td colspan="3">시험 영역 공부</td> <td colspan="3">추가 영역 공부</td> <td>문풀+오답</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부터 문풀이 시작되기 때문에 매주 시험 보는 영역의 내용과 추가로 다른 한 과목의 내용을 공부했어요.</li> <li>- 각 과목의 요약자료(단권화 자료)를 정독하고, 이후 백지t를 실시하며 공부했어요.</li> <li>- 이때부터 수기로 백지t를 실시하기에 양이 감당이 되지 않아, 아이패드에서 타이핑으로 백지t를 실시했어요. 목차수첩을 보며 타이핑으로 인출하였고, 채점 후 틀린 부분은 완벽히 암기될 때까지 따로 수기로 백지t를 실시했어요.</li> </ul> <div data-bbox="1133 1680 1364 198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타이핑 백지t]</p>  </div>		7월 1주	7월 2주	7월 3주	7월 4주	7월 5주	8월 1주	8월 2주	8월 3주	8월 4주	시험영역	성+발	사+놀	교+부	신	의	사	예	자	운	추가영역	신	의	사	예	자	운	성+발	사+놀	교+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험 영역 공부			추가 영역 공부			문풀+오답
	7월 1주	7월 2주	7월 3주	7월 4주	7월 5주	8월 1주	8월 2주	8월 3주	8월 4주																																				
시험영역	성+발	사+놀	교+부	신	의	사	예	자	운																																				
추가영역	신	의	사	예	자	운	성+발	사+놀	교+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험 영역 공부			추가 영역 공부			문풀+오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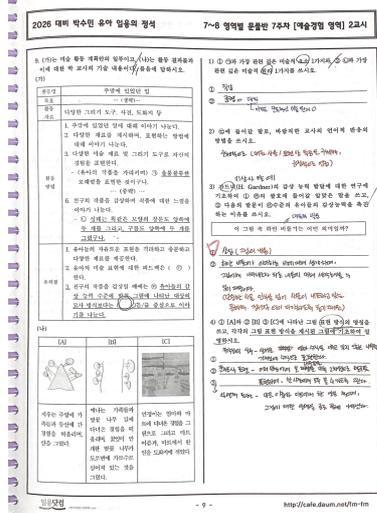
**문풀**

- 스톱워치로 문제를 풀 때 걸리는 시간을 재며, 최대한 제한 시간 안에 풀려고 노력했어요.
- 문제를 모두 풀 후에는 먼저 답지를 보고 스스로 채점했어요. 틀린 내용은 빨간 볼펜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은 파란 볼펜으로 적어갔어요. 기본서를 통해 모든 문제를 스스로 이해한 후에 해설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 기본서와 답안을 비교하였을 때,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에는 작게 별표 표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수강할 때 대부분의 문제는 배속으로 빠르게 들으며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고, 별표 표시해 두었던 문제가 나올 때는 배속을 낮춰 요개념을 바로잡기 위해 집중해서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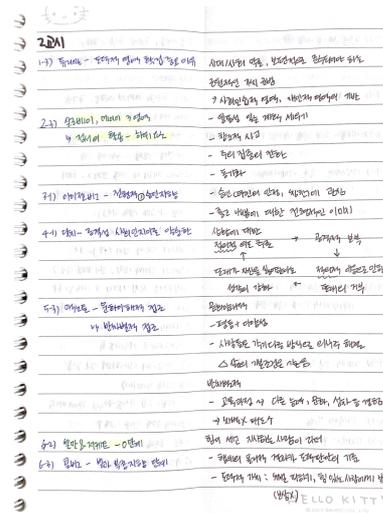
**오답**

- 해설 강의까지 들은 후에는 오답 정리를 했어요. A5 크기의 노트를 절반으로 접어, 왼쪽에는 문제를 쓰고 오른쪽에는 답안을 적었습니다. 문제는 최대한 키워드 위주로 간단히 추려 적었어요.
- 오답노트를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문제와 답안만을 적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헛갈렸던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를 묻는 문제에서 내가 B를 적어 틀리게 됐다면, 오답노트에는 A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의 차이점을 정리해야 해요.
- 오답노트를 만든 당일에는 이를 암기하고,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고 답안을 인출했습니다. 7월부터는 매일 한 과목씩 나누어 오답노트의 내용도 계속해서 인출했어요.

문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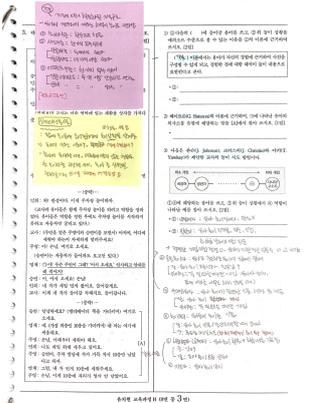
[문풀 프린트]



[오답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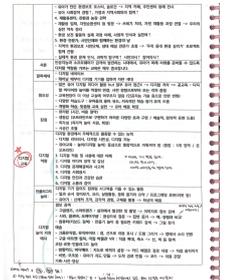
9~10월 <모의고사반>

고시문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문, 7대 안전, 아복법 타이핑t를 번갈아가며 매일 실시했어요.</li> <li>- 분량을 나누어 매일 조금씩 응급처치 부분을 정독했어요.</li> </ul>			
해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 분량을 정해두고 해이실 요약자료를 조금씩 읽었어요.</li> <li>- 틈날 때마다 해설서 목차, 이해&amp;실행 백지t 실시했어요.</li> </ul>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집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었어요.</li> <li>- 분량을 정해두고 법pdf를 매일 조금씩 정독했어요. 그동안 틀려서 체크해두었던 빈칸 위주로 읽어나갔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씩은 공부했어요.</li> </ul>			
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주일에 기출 한 문제씩 풀었어요. 이때부터는 구상과 답안 작성 모두 실제 시험지에 진행했습니다.</li> <li>- 시험이 일주일 남았을 땐 매일 한 문제씩 풀었어요. 기출과 논술 실전 문제를 하루씩 번갈아가며 풀었습니다.</li> </ul>			
개론 & 각론	<p><b>백지t</b></p>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 <b>9   September</b>                  M T W T F S S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d> <td style="width: 33%;"> <b>10   October</b>                  M T W T F S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d> <td style="width: 33%;"> <b>11   November</b>                  M T W T F S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d> </tr> </table> <p>[9~11월 회독 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8월에는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전 과목을 보았었는데, 9월부터는 이 주기를 줄여나갔어요. 전 위와 같이 기간을 잡고 시험 전까지 전 과목을 총 9번 돌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li> <li>- 7~8월까지 단권화를 정독한 후에 백지t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지만, 9월부터는 단권화 정독을 생략하고 바로 목차를 보고 아이패드 타이핑을 쳐서 백지t를 실시했어요. 초반엔 인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모든 내용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백지t 실시 후, 틀린 내용은 단권화 자료에 파란색 색연필로 표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틀린 부분은 백지t를 따로 다시 실시했습니다.</li> <li>- 주기를 점점 줄일수록 타이핑을 치는 시간도 빠듯해지더라고요. 일주일에 전 과목을 돌리게 된 시기부터는 백지t의 실시 방법을 바꾸었어요. 이때는 목차를 보고 해당 내용을 말로 뱉었습니다. 개념 하나하나 뱉을 때마다 단권화 내용과 비교하며 채점했어요. 시험날에 다다라서 4일, 3일.. 만에 전 과목을 돌리는 시기에는 말로 뱉어낼 시간마저 빠듯해져요. 이때는 목차를 보고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바로바로 채점하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li> </ul>	<b>9   September</b> M T W T F S S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b>10   October</b> M T W T F S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b>11   November</b> M T W T F S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b>9   September</b> M T W T F S S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b>10   October</b> M T W T F S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b>11   November</b> M T W T F S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p><b>개론 &amp; 각론</b></p>	<p><b>기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2013년 문제를 모두 뽑아 제본한 후, 2일 정도씩 간격을 두고 하루에 하나씩(A형/B형) 분석했어요. 이미 이전까지 기출 문제 자체는 반복해서 보았던 터라, 문제와 답안 및 지문은 모두 외워진 상태였어요. 따라서 문제를 다시 풀거나 지문을 분석하는 공부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 및 지문에서 언급된 개념 관련 인출을 진행했어요.</li> <li>- 먼저 문제, 지문에서 언급된 개념에 형광펜을 친 후, 관련해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빈 공간에 적어보았어요. 적은 후에는 단권화 자료와 비교해 보며 채점했습니다.</li> <li>- 틀린 내용은 수기로 여러 번 다시 적어보며 정확한 내용을 익혔습니다.</li> </ul>	 <p>[기출문제 프린트]</p>
<p><b>모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풀 때와 마찬가지로 매주 일요일마다 모고를 풀고 오답 정리를 했어요. 이때는 실제 시험장처럼 환경을 세팅해놓고 문제를 풀었어요. 유튜브에서 임용 안내 방송 음원을 틀어놓고, 이에 맞춰 실제 시험 시간에 맞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답안도 실제 시험지에 작성하였습니다.</li> <li>- 공부 방법은 문풀 때와 같아요. 모고 때 틀린 내용은 단권화 자료에 빨간색 색연필로 표시해두었습니다.</li> <li>- 모고 때 만든 오답노트도 일요일 당일에 모두 외웠고, 이후에도 매일 한 회차씩 인출했어요.</li> </ul>	
<p><b>*</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 평균 공부 시간 : 10시간</li> <li>- 이때 실시한 기출 분석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우선 그날 타이핑으로 인출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랜덤으로 인출해 볼 수 있어 공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어요. 또한 기출에서 다뤘던 개념을 확실히 다지고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li> </ul>	

2. 2차 준비 방법

1차 발표 전

<p><b>심층 면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로그, 유튜브, 카페 등에서 합격생들이 공유해 주시는 면접 자료를 많이 활용했어요. 이 자료들과 박쌤이 주신 자료들을 기반으로 저만의 면접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능틀, 면접 주제별 주요 내용 등을 적어 표로 정리했어요.</li> <li>- 박쌤 제본집에 있는 면접 문제들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었어요. 실제 면접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2~3세트씩 풀었습니다.</li> </ul>	 <p>[면접 노트]</p>
<p><b>수업 실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연 역시 받아놓은 만능틀들을 많이 참고했어요. 여기에 박쌤 자료 및 강의 내용까지 참고해서 저만의 만능틀을 만들었습니다. 유형별로 도입, 전개, 마무리를 나누어서 주요 발문들을 정리하고 각 유형별로 수업 설계 시 유의해야 하는 점들도 함께 정리했어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혼자 공부하는 성향이라 1차 때는 스터디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차는 스터디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경험이 없는 초수라면 더더욱! 저는 같은 지역을 쓴 동기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했어요.</li> <li>- 스터디를 통해 문제 속 같은 조건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볼 수 있고, 좋은 수업 아이디어들도 얻을 수 있어요. 제 수업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들도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무엇보다 남들 앞에서 수업을 많이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li> <li>- 스터디 진행 방식 : 주 2회 / 면접1+수업1 (2세트 할 때도 있고, 수업만 2번 할 때도 있고.. 유동적으로 진행했어요) / 초반엔 기출을 돌렸고, 후반엔 자신이 하고 싶은 문제로 진행했어요.</li> <li>- 스터디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두었다가 집에서 돌려보세요. 영상을 통해 자신의 사소한 습관, 말투, 표정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li> </ul>
---	--

### 3. 수면 및 건강 관리 방법

수면 및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 최소 6시간은 잤어요. 6시간보다 적게 자면 다음 날 정신이 멍하고 집중이 잘되지 않더라고요. 공부하다 중간중간 잠이 올 땐 커피를 마셨고, 무릎을 꿇거나 일어서서 공부하며 잠을 깨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잠이 깨지 않는다면 15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쪽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조금이라도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li> <li>- 시간이 아까워서 따로 운동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었습니다.</li> </ul>
---------	--

### 4. 스트레스 극복 방법

스트레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밥을 먹을 땐 공부를 하지 않고 핸드폰을 하거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꼭 쉬었어요! 하루에 두 번은 고정적인 휴식 시간을 만들어 놓으니, 중간중간 리프레시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임용은 장기전이기에 때문에 자신만의 휴식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li> <li>-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믿어서, 늘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공부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바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오래 빠져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전엔 늘 합격하는 상상을 하며 잠에 들었어요.</li> </ul>
---------	--

### 5. 소감 (공부하며 느낀 점)

1년 동안 공부를 하며 '나보다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 정말 많은데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초수생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위축되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고 하루 하루 해야 할 일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합격창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모두들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노력이 모여 합격이라는 순간을 만들어 내니까요!